

재림 전 말세 사람들의 특징과 그리스도인의 자기 점검

딤후3:1-9

요즘 세상이 심히 어지럽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온 세상,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전체주의 독재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실현되고 있다.

롬1, 개인과 국가와 세상을 하나님이 버리실 때, 즉 재림과 심판의 징조가 기록됨

세 가지 징조: 1. 온 세상에 성적인 죄악 만연(음란물), 2. 여성과 남성의 동성에 창궐, 3. 버림받은 생각, 사람들 정신세계의 붕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짐승처럼 된다).

지난 주, 인간성의 상실과 황폐화, 낙태, 동성애, 차별금지법, 사회주의 공산주의 찬성, 사람들이 자유를 포기하고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갈망함

오늘은 < >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를 돌아보려 한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디로 가는가? 더 좋은 세상, 밝은 세상, 아니다. 멸망을 향해 치닫는다.

말세는 곧 주님이 다시 오는 때, 휴거가 일어나기 바로 전

어떻게 아는가? 일점일획도 오류가 없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모든 것에 대한 진리가 들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요17:17).

목사/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1)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목회 서신이다. 마지막 4장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4:1-2).

그러면 디모데는, 목사는 무엇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가? 2:2

그가 가르친 것들 중 특히 기록된 것들은 심히 중요하다.

오늘 딤후 3장은 그가 가르치라고 말하고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목회자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1). 재림 전, 휴거 전에 위험한 때가 닥친다.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위험한 때가 온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사실을 알고 바르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즉 우리가 무언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알아야 한다.

마지막 날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때

위험한 때는 견디기 어려운 때, 인간이 야만인이나 짐승처럼 되는 때, 게르게스 지방의 마귀 들린 자들(마 8:28), 아주 사납다. 쇠사슬로 묶어도 끊고 악한 짓을 행한다. 즉 마지막 때의 악행은 마귀들의 개입에 의해 자행된다(딤후4:1). 이런 위험한 현상은 바울 시대부터 지속된다. 그런데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고 지금은 우리 눈으로 매일 목도하고 있다. 즉 악의 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 온 세상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

왜 이것들을 언급했을까?

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이런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을까?

맨 마지막 추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 딤후3장, 감독은 지역 교회의 목사, 지금과 같은 교단의 감독이 아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AD 55년경, 디모데 등 함께 19장 22절), 행19장, 당시 에베소는 거대한 도시, 다이애나 여신 숭배(7대 불가사의), 그는 두란노 학교에서 2-3년 동안 말씀 선포(행 19:10), 직접 오랫동안 머물며 말씀 선포, 어쩌면 그가 가장 사랑한 교회

몇 달 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도들 밀레도로 초청함(행20). 긴밀한 관계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행20:29),

몇 년 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AD 62년경). 에베소서. 그들이 교회와 교리를 이해하고 교회를 잘하고 있다.

다시 3년쯤 뒤 디모데전서(65년경): 이들이 변하고 있다(딤후1:3-4). 문제가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디모데가 바울이 떠난 뒤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목사

왜 위험한 때라고 했을까? 2-7절에 나오는 것들,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리더들)의 특성,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의 특성

물론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갖게 됨

주의 사항: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간성이 파괴된 자들이 먼저 나타난다.

나는 아니고 불신자들이 그렇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의 나를 나를 보아야 한다.

위험한 때 사람들의 특성(2-6)

1. 잘못된 사랑을 한다. 잘못된 것들을 사랑한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4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성경의 총 주제(마22:37, 39)

이것이 뒤집어졌다. 자기 사랑, 쾌락들 사랑: (*) 자기 존중, 네 속에 있는 자아를 발견하라. 네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포스트모던 철학, 절대적인 것은 없다.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 (*) 동성애, (*) 트랜스젠더 등 인간을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자기 사랑, 본성의 애정이 없다(3): (*) 태중에 있는 아이를 마음대로 죽인다. (*) 낳은 아이를 버린다. 낙태, (*) 장인 앞에서 아내를 죽인다.

선한 자들을 멸시한다(3): 이승만, 박정희 등 국가를 세우고 발전시킨 사람들 중요

(*) 미국 같으면 킬리버스 동상을 부순다.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았다고.

당시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잣대로 100년, 500년 전의 역사를 뒤집어놓으려 한다.

악한 자들을 위대하게 만든다.

김원봉, 홍범도, 이들은 다 공산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위인으로, 영웅으로 만든다.

(*) 한국교회연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홍범도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 그는 소련 공산주의 편에 서서 같은 독립군을 학살하였다'는 제목의 논평을 8월 17일 발표했다.

이들은 홍범도 유해 송환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어찌 공산주의자들만 특별 대접하는 것처럼 보이는가"라며 "간첩 신영복, 6·25 남침의 주역 김원봉, 그리고 동족 독립군을 궤멸시킨 홍범도 등 모두 공산주의자들이 아닌가? 참으로 괴이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백선엽같이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들은 파묘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또 이 시대 가장 선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이다. 지난 150년 동안 한반도 역사에서 기독교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생각해야 한다. 이들이 없이 지금의 대한민국 불가능,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개독교라고 해서 사회가 경멸하고 조롱한다.

코로나 방역, 다른 데서 전염된 것은 별로 말 안 한다. (*) 그런데 교회의 것을 크게 밝힌다. 교회에서 감염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2. 2절의 탐욕을 부리며, 가장 큰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하나님 이상으로 무언가를 받드는 것, 자기, 돈, 자동차, 집, 명예, 지식, 외모

3. 2절 자랑하며 교만하며, 말과 생각이, 창조물의 가장 큰 죄, 원죄가 바로 교만과 자랑이다. 루시퍼, 아담과 이브가 이 죄들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성도들도 자랑과 교만 죄를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 분들: 나 몇 년 다녔다. 초장기 멤버이다. 무슨 일을 하고는 꼭 공치사를 한다.

4. 신성모독 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이 둘은 같이 다닌다. 존경할 대상에게 존경을 주지 않는 것 인간으로서 가장 크게 존경해야 할 대상, 하나님과 부모, 십계명(1,2, 그리고 5), 하나님, 네 부모 성경의 요약: 하나님과 부모를 업신여기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이다.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함당하게 대하지 않으면 이것 역시 신성모독

불신자보다도 나쁜 자(딤펴5:8)

신성모독: 창조물이 창조자가 없다고 하는 것, 진화론, 스스로 다 안다고 하는 것, 스스로 유평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공산주의 사회주의 모두 신성모독

(*) 여기에 목사들이 가세한다. 대동 세상, 억강부약 환영

5. 신성모독, 부모 학대의 현상 징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감사하는 것, 딤펴6:5-7

모두가 똑같이 소유하고 잘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꿈꾸면 결국 환경 탓, 부모 탓, 하나님
탓 하게 된다.

인생은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빛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하나: 과거의 불행에 얽매이지 않는 것, 거기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
좋지 않은 과거: 조실부모, 집안 가난, 교육 부족, 부모 이혼, 부모 사업 실패 등등

이로 인해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이 어려웠다.

이것을 평생 동안 간직하고 살면 본인만 점점 더 고립되고 어려워지고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
감사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 새로운 창조물이 됨,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함(고후
5:17)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자유, 마약, 술, 이혼, 악한 습관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과거와 구분되는 삶

바이블 빌리버, 왜 성경을 읽는가? 창세기의 요셉을 보라. 유다 패망 당시의 예레미야를 보라,
우리 주 예수님을 보라. 환경과 조건이 금수저인가? 아니다. 완전 흙수저이다.

나중에 요셉은 성공, 그러나 예수님과 예레미야는 사람 눈으로 보기에 절대 성공 아니다.

오늘 바울, 결국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다. 왜? 우리에게 영원이 있으니까(히12:1-2).

영원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

그래서 불평불만을 멈추고 이 땅에서 자기 사랑, 자랑하는 것 멈추고 하나님과 영원을 사랑하고 기뻐해
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의 리더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위험한 때이다.

목사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 교회의 목사 포함 리더들, 세상 이야기 잠시 잠깐 OK

그러나 항상 세상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과거를 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의 대화

6. 3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그런데 요즘 국가의 리더들을 보면 약속을 너무나
쉽게 뒤집는다.

대한민국 선거법, 선거 소송은 180일(6개월), 지금 거의 1년 6개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3곳 재검표 수많은 부정 투표지, 협정을 어긴다. 아직 재검표 100개 넘는다. 기독교 자유
통일당, 비례 대표, 대법관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함

앞으로 법을 지키는 않는 자들의 횡포가 날로 심할 것이다.

또한 거짓 고소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특별히 지금은 SNS 시대. 일단 말해 놓고 모든 소문이
온 세상을 돈 뒤에 상대방이 피해를 보고 망한 뒤에 판결 결과가 나온다. 이미 모든 것은 끝장이
나 있다. 초고속 인터넷 시대의 폐해

7.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것도 자기 사랑과 관련이 있다.

성도의 특성 중 하나: 절제, 성령님의 통제, 욕, 중상모략, 가십 비방

목사로서 놀라는 것: 성도들 중에 사나운 사람을 보면, 와 성도가 저렇게 사나울 수가 있나?

사람의 본성은 잘 바뀌지 않는다. 안다. 그럼에도 불신자들보다 더 사나운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 변해야 한다.

8 배신하며

배신하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배은망덕,

미국에 대한 태도를 보라. 배은망덕

9.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자기 사랑에서 나온다. 요일2:16-18

10.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종교 생활(기도 헌금 예배 참석 성경 읽기 등).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없다.

어떤 능력: 역경, 고통, 과거의 아픔, 구원의 기쁨, 성화하려고 애쓰는 것, 성도와의 진솔한 교제 자기의 부족함,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 경건 서적 읽기, 올바른 가정생활, 사회생활, 확고한 국가관

바울의 권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악한 목사들, 거짓 목사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 떠나야 한다.

개인과 교회와 국가 멸망의 원인

이들이 하는 일: 가정 파괴, 말세의 특징 중 하나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 미련한 여자들, 사실 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당시 여자들은 사회에서 낮은 위치, 이런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자기의 위치를 높이려는 자들

지금도 마찬가지, 성도들의 어려움을 빌미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

이런 것을 유도하는 자들은 나쁘고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걸려드는 사람들의 특징: 7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느니라.

바이블 빌리버로서 스스로 설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

이 능력이 결여되면 평생 예수님을 믿고도 사람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 1992년 다미 선교회 휴거 열풍, 하얀 옷, 12시, 집 팔고 준비하던 무지한 사람들이 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자들이 있다.

결론

마지막 때, 재림 전, 휴거 전, 위험한 때가 온다.

특징: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

왜 그럴까? 참 진리이신 예수님 거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거부, 하나님의 사랑 거부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지만 결국 인내의 한계가 온다(벧후3:3-4, 9).

적그리스도의 때가 올 때 나타는 현상: 살후2:9-12

물론 이것은 7년 환난기 때, 그러나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가 나타나기 전부터 위험한 때가 되어 사람들이 쉽게 미혹에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작금의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 예수님을 믿는 능력, 과거의 아픔을 이기는 능력, 타고난 내 성격을 이기는 능력, 사회 현상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 악한 세상을 이기며 헤쳐 나가는 능력,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 능력, 진리 안에서 서야 한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자.